

사라지는 '순수전세'...광주 임대차 2건 중 1건 '월세'

1분기 6153건 중 49.6%...4년전 37.6%서 급증 보유세 부담 피하려 기존 임대물건 매매로 돌려

광주지역 주택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대기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매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사기 리스크, 주식 시장 호황 등 여파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전·월세 계약 6153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880건)의 월세 비중 46.1%보다 3%p 이상 상승한 수치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이 월세로 채워지고 있는 셈이다. 월세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37.6%에 머물렀던 월세 비중은 2023년 1분기 41.8%, 2024년 1분기 42.2%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0%에 육박하며 구조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전세 시장 위축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수요층은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다, 집주인은 금리 부담과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전세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매매 시장 역시 집값 하락 우려

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 전월세 매물 품귀로 이어지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매매와 전세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월세 수요를 밀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두기보다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초기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2~3년 전부터 전·월세가 눈에 띄게 줄었는

데 월세의 경우는 씨가 마른 수준"이라며 "전세 매물은 한 번씩 보이는데 월세는 나오지 않거나 가격이 높아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유세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 매매로 돌려다 보니 전·월세는 더 줄어들고 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주시시장의 호황으로 매매나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아파트 매물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3일 기준 매매 매물은 2만6977세대에 달한다. 2023년 1만4521세대에서 2024년 2만578세대, 2025년 2만3560세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월세 매물은 1613세대로 2024년 말(2037세대)보다 26% 넘게 줄고 2023년 말(2346세대)과 비교하면 45% 가량 감소했다. 전세 매물 역시 2472세대로 2년 전(3813세대)과 3년 전(3841세대)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월세 비중은 지난 2월 68.3%에 육박했다. 2022년 47.1%, 2023년 52.4%, 2024년 57.5%, 2025년 61.4%에 이어 5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 에너지밸리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본궤도

광주도시공사, 12월 착공·2029년 입주 목표 762가구...10년 거주 후 '확정 분양가' 전환

광주도시공사가 남구 에너지밸리에 조성하는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도시공사는 남구 에너지밸리 산 업단지 내 3만6313㎡ 부지에 총 762가구 (59㎡ 441가구·84㎡ 321가구) 규모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누구나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밸리 누구나집은 상반기 중 이사회 의결과 리츠 설립을 거쳐 하반기에 HUG 기금 투자 심사를 마친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계획

이다. 누구나집은 시세의 75~9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최초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현재 확정 분양가는 59㎡형 2억9360만원, 84㎡형 4억4900만원 선이다. 또 사업지 인근의 광주~강진 고속도로 '대촌IC'가 12월 개통하고 '광주~나

주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입지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한 좌초 위기를 딛고, 사업 계획 변경과 리츠 출자를 확정해 연내 착공이 가시화 하고 있다"며 "입주 이후에는 선호도 높은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켄텍, 극저온·수소 연구 '국가실증' 잇단 수주 황지현 교수 연구실, 대형 과제 4건 확보...연구비 40억 확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극저온·수소 분야에서 국가 대형 실증 과제를 잇따라 따내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켄텍은 황지현 교수(사진)의 HYLLOT (Hydrogen Liquefaction & Value Chain Optimization Technologies) 연구실이 올해 국가 대형 실증 신규 과제 4건을 수주, 총 40억원의 신규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연구실은 액화수소와 극저온 열역학, 공정 최적화, 수소 공급망 시스템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한다.



높이는 사업이다. 연구실은 동적 공정 해석과 운전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은 대형 저장탱크, 적하역 시스템, BOG 재액화, 안전·인허가 기술까지 포함하는 국가 공급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HYLLOT 연구실은 국내 연구를 넘어 국제 공동연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Horizon Clean Hydrogen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 중이며, 노르웨이 SINTEF, 독일 Fraunhofer, Linde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함께 차세대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황지현 교수는 "이번 성과는 극저온·수소 시스템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규 과제 수행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까지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또 'LNG 미활용 냉열 기반 산업용 가스 생산 기술 개발'은 LNG 기화 과정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활용, 질소·산소 등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극저온 공정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액화수소 인수기지 핵심기술 개발'은 대형 저장탱크, 적하역 시스템, BOG 재액화, 안전·인허가 기술까지 포함하는 국가 공급망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향후 청정수소 도입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HYLLOT 연구실은 국내 연구를 넘어 국제 공동연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Horizon Clean Hydrogen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 중이며, 노르웨이 SINTEF, 독일 Fraunhofer, Linde 등 글로벌 연구기관과 함께 차세대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황지현 교수는 "이번 성과는 극저온·수소 시스템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규 과제 수행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까지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 연구실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농협 전남본부(왼쪽부터)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조선업 미래공제사업' 추진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재)전남인력개발원, 고용노동부, 전남도, 영암군과 협력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신규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전남 조선업 미래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상호 사내 협력사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근로자가 100만원을 적립하면 고용노동부와 전남도·영암군, 협력사가 함께 매칭 적립해 만기 시 총 400만원의 공제금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경우 15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과 함께 조선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24일부터 NH농협은행 전남도청출장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HD현대상호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운영해 공제 가입 상담부터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참여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높였다. 장재영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전남도의 제1금융 은행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전남 조선업 미래공제가 신규 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협력 강화

농협 전남본부-농관원 전남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출하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정보 공유, 교육, 홍보 협력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관리 강화와 관련 교육·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전남 농산물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오리 사육 35% 급감...HPAI 직격탄

새끼오리 입식 위축에 1분기 138만마리 감소

올해 1분기 전남의 오리 사육 마릿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피해 확산으로 대폭 감소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전남의 오리 사육 마릿수는 260만612마리로 작년 동기(398만1939마리) 대비 138만1327마리(-34.7%) 줄었다. 이는 HPAI 발생으로 인해 육용 새끼오리 입식(사육 시설에 새로 들어는 일)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대신 닭 마릿수가 지난해 2345만4074마리에서 2508만5259마리로 163만1185마리(7.0%)가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한·육용 사육 마릿수가 321만8000마리로 작년 동기 대비 16만6000마리(-4.9%) 줄었다. 가임 암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젖소 역시 가임 젖소 감소로 6000마리(1.7%) 줄어든 37만1000마리로 집

계됐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든(머미돼지) 감소에 따라 1071만6000마리로 8만마리(0.7%) 줄었다. 오리는 529만4000마리로 100만1000마리(15.9%) 감소했다. 닭의 경우 고기용으로 사육되는 육용계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9646만3000마리로 250만6000마리(2.7%) 늘었다. 반면 알을 낳는 산란계는 24만8000마리(0.3%) 감소한 7774만7000마리로 집계됐다. HPAI 발생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6개월 이상 마릿수(-5.5%)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24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함께 광주 대촌농협과 나주 산포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농협 광주공판장, 도매시장 활성화 '현장경영' 대촌·산포농협 농업인 대상 유통 정보 제공·PLS 교육도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최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함께 광주 대촌농협과 나주 산포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산자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공판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유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PLS(농약허용기준

화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자승품장 사용법 안내를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효율적인 출하 절차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창욱 장장은 "생산자 농업인의 출하 가격 보전은 농협 공판장의 존재 이유"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매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